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몇가지 특성

한 영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은 학생들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있게 인식할수 있도록 교수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21권 70페이지)

현시기 외국어교수에서는 학생들이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언어사용의 규범과 규칙들을 정확히 습득하고 옹계 활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이 글에서는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몇가지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무엇보다도 본문을 이루고있는 문장이 오른쪽으로 확대되어나가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문장이 오른쪽으로 확대되어나가는 현상이 글말에서는 보통 글을 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문체론적수단으로 되고있지만 입말에서는 이와 다르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과는 달리 자기가 할 말을 모두 미리 계획하고 말을 시작하는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로부터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요한 요소들이 문장론적으로 보통 놓여야 할 위치에 놓이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요소들은 보통 문장의 오른쪽으로 확대되어가면서 다시말하여 문장테가 끝난 이후에 놓이게 되는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볼수 있다.

첫번째 현상은 문장테밖으로의 단순한 내보내기현상이다.

례: Kanns ja heute abend nochmal anrufen zu hause

(오늘 저녁에 다시한번 전화할수 있어, 집에서 말이야.)

두번째 현상은 문장테밖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입말에서는 자체의 력점이, 글말에서는 반점으로 앞의 구조와 명백히 분리시켜주는 현상이다.

례: Frau Mönkeberg hatte ihr zum Einzug zwei junge Kätzchen geschenkt, eine schwarze und eine weiße [...]

(뫼켄베르그부인은 입사할 때 그 녀자에게 작은 새끼고양이 두마리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은 까만 고양이와 흰 고양이였다.)

세번째 현상은 오른쪽으로 보내기현상이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요소를 문장내에서 다시 반복하여야만 문장이 내용적으로 완결되기때문이다.

례: Die Leute haben ihn alle geschluckt, den Steuerzuschalg.

(사람들모두가 참았어, 그 세금부가금을 말이야.)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동사가 문장의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의 인칭변화형이 알림문에서 두번째 자리에 놓이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이 실제적인 언어사용에서는 무시되고 동사의 인칭변화형이 두번째 자리가

아니라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현상은 특별한 표현적 및 정서적효과를 나타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전보나 이동통신의 단문통보문, 룡담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례: Bin gerade angekommen. (방금 도착함.)

이러한 현상은 또한 류다른것이 전혀 아닌것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피테의 서정시 《들장미》에서 찾아볼수 있다.

례: Sah ein Knab ein Röslein stehn [...] (한 소년이 들장미 서있는것을 보았네.)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동사가 문장의 마지막자리에 놓이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동사를 마지막자리에 놓는 현상은 발화행위를 나타내는것외의 다른 기능이 없는 주문장을 생략하고 부문장만을 남기는 현상이다. 이때 문맥의 도움으로 주문장이 생략된다.

례: Wenn es schon soweit wäre!

← Ich wäre froh, wenn es schon soweit wäre.

(벌써 이렇게 됐으면!

← 벌써 이렇게 됐으면 나는 기쁘겠는데.)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앞에서 한번 지적한것을 뒤에서 반복하는데서 그리고 뒤에서 쓰인것을 앞에서 지적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앞에서 한번 지적한것을 뒤에서 반복하는 현상은 주제부전개에서 가장 단순한 언어적수단으로 되고있다.

본문문법의 특성의 견지에서 보면 이 경우에는 우선 문화적인 배경지식을 전제로 하고있으며 문법적일치가 보장되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이다.

례: Mädchen lieben Pferde. Sie betreuen sie gern.

(소녀들은 말을 사랑한다. 그들은 그 말들을 잘 돌봐준다.)

Von draußen klang das Gelächter der restlichen Clique herein - sie vergnügten sich im Swimmingpool. (밖에서 남아있던 패거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놈들은 수영장에서 즐기고있었다.)

이 경우에는 또한 같은 주제부를 대명사화하여 뒤에서 반복하는것이 아니라 그 주제부의 보다 구체적인것을 지적하거나 전혀 새로운것을 지적한다는것이다.

례: Das Brautpaar trat aus der Kirche. Er strahlte über das ganze Gesicht.

(신혼부부는 교회당에서 나왔다. 그의 온 얼굴에서는 밝은 빛이 뿜어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언급되는 대상을 파악하지 말아야 하거나 또 파악할수 없으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적수단을 피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례: Er erlitt einen kurzen hysterischen Anfall und begann dann in hastig-schlampigem Gekrakel zu schreiben:

Sie werden mich abknallen mir ganz wurscht mit einem genickschuß werden sie mich abknallen mir ganz wurscht nieder mit dem großen bruder sie knallen einen immer mit genickschuß ab mir ganz wurscht nieder mit dem großen bruder.

(그는 갑작스레 히스테리발작을 하고는 성급하고도 조잡한 글씨로 그놈들이 나를

무자비하게 싸갈길것이다, 아무렇게 해도 난 좋아, 목덜미사격으로 나를 무자비하게 싸갈길것이다,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큰형과 같이 싸갈길것이다, 목덜미사격으로 싸갈길것이다,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큰형과 같이 싸갈길것이다라고 썼다.)

뒤에서 쓰인것을 앞에서 지적하는 현상은 뒤에 놓이게 될 대상이나 상황을 대명사로 앞에서 먼저 지적함으로써 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겠는가 하는 긴장감에서 뒤에서 언급되는 대상이나 상황을 주시하게 하려는데 있다. 긴장감을 자아내는 이러한 쓰임은 문예소설에서 쓰이고있다.

례: Er ging in sein Haus und erwartete sie dort. Gabnèle, still und allein, betrat das Zimmer.

(그는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녀자를 기다렸다. 가브넬레가 말없이 혼자서 방안으로 들어섰다.)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끼움말현상에서 찾아볼수 있다.

끼움말현상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나 독자의 주의를 끌거나 말하는 과정에 교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끼워넣거나 언어적환경이 그것을 사용할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게 된다.

례: Wir haben - und das ist notwendig - den Kassensturz angekündigt. Die Regierung ...

(우리는 -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존현금에 대한 검열을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정부는 ...)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파격구조에서 찾아볼수 있다.

파격구조라고 할 때 그것은 표현단위들이 문장론적으로 단순하게 통합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끊기우면서 련결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것을 말한다.

말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계획했던 문장구성에서 탈퇴하여 그것을 수정하고 새로운 문장구성을 생각해내면서 말을 하게 된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발언행위과정에 자기가 한 말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것을 수정하고 새로운 문장구성으로 향하게 되기때문이다.

파격구조현상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초기에 계획하였던 문장구성을 중단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며 다음단계에서 원래의 문장구성을 수정하게 된다. 이때 보통 표현을 직접 수정하게 되며 수정된것이 뒤에 놓이게 된다.

례: und die Bronshalle die war eigentlich nie voll

(.)

wir waren doch meistens in einem ·
wo waren wir denn man zuallererst;

(청동으로 된 홀, 그 홀에는 원래 사람들이 가득찬적이 없었어.

우리는 대체로 그 어떤, 우리가 있었던 곳, 왜냐하면 처음에 있었던...)

파격구조현상에서 다음에는 새로운 문장구성으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문장구조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 이미 말한것가운데서 아무려한것도 다시 반복하지 않으며 문장구조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된다.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것은 동사가 첫번째 자리에 놓이는 문장이나 마지막자리에 놓이는 문장형식이 아니라 두번째 자리에 놓이는 문장형식이다.

례: Obwohl wir uns so bemüht haben, wir haben es nicht geschafft.

(우리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한개 성분이 여러 문장론적의미를 표현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한번 쓰인 문장구성요소를 뒤에서 다시 반복하여 쓰지 않고도 앞의것과는 다른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 현상으로서 적은 언어적수단으로 보다 많은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법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동사의 인칭변화형을 반복하여 쓰지 않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례: Ich habe den ganzen Tag gearbeitet und wirklich keine Lust mehr, dies jetzt auch noch zu erledigen.

(=Ich habe den ganzen Tag gearbeitet und habe wirklich keine Lust mehr, dies jetzt auch noch zu erledigen.)

(나는 하루종일 일하여서 이것을 지금 마저 끝낼 생각이 사실말이지 전혀 없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명사에서도 나타나고있는데 이때 명사는 명사적단어결합의 주도어로, 합성명사의 기본말뿌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례: keramische und Glasindustrie (=keramische Industrie und Glasindustrie)

(도자기공업과 유리공업)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문장의 왼쪽에 명사구 등을 놓는 현상과 뒤따르는 문장에 엮매이지 않는 주제부현상에서 찾아볼수 있다.

우선 문장의 왼쪽에 명사구 등을 놓는 현상을 보기로 하자.

이 현상은 문장의 왼쪽 즉 문장의 첫자리에 문장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구나 전치사구가 놓이고 그다음에 동사의 인칭변화형이 보통 두번째 자리에 놓이는 문장이 뒤따르는 현상이다. 이때 뒤따르는 문장에서 동사의 인칭변화형의 앞에는 지시대명사나 문장의 첫자리에 놓인 명사구/전치사구를 대신해주는 대용어가 놓인다.

례: die Brigitte – die kann ich schon gar nicht leiden:

지시대명사

(그 브리기테를, 그 녀자를 내가 인제는 전혀 좋게 생각할수 없어.)

문장의 왼쪽 즉 문장의 첫자리에 문장성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구나 전치사구가 놓이고 그다음에 알립문형식의 문장이 보통 놓이는것으로 되어있지만 보충물음문도 놓일수 있다.

례: und äh die mutter – (.) wie alt ist die.

(저런 어머니가, 어머니가 몇살이던가.)

또한 뒤따르는 문장에 엮매이지 않는 주제부현상을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주제부는 어떤 담화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거나 이전 담화의 주제내에서 새로운 주제에 초점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주제부는 문장론적측면에서 분석하여볼 때 문장론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단위로서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된다.

례: die schlanke blonde da drüben: ich glaube – ich habe dieses gesicht schon einmal

gesehen;

(저기 저쪽에 있는 허리가 날씬하고 머리가 금발인 여자, 그 여자의 얼굴을 이미 한번 봤다고 생각돼.)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주제부-설명부구조에서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제부전개류형들에서는 주제부가 다음의 문장들에서 단어반복이나 대용어반복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주제부가 한개의 성분으로 구성되면서 모든 진술내용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사전의 올림말에서 찾아볼수 있다.

례: Thälmann, Ernst, Politiker, *Hamburg 16.4. 1886, †(ermordet) KZ Buchenwald 18.8. 1944; wechselte 1917 von der SPD zur USPD, 1920 zur KPD;

...

am 3. 3. 1933 durch die Nationalsozialisten verhaftet.

(텔만, 에른스트, 정치가, 1886년 4월 16일 함부르크에서 출생, 1944년 8월 18일 부헨왈트집단수용소에서 학살됨; 1917년 도이칠란드사회당에서 도이칠란드독립사회당으로 옮겨감; ... 1933년 3월 3일 나치스들에 의해 체포됨.)

우의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보통 한개의 성분으로 된 단위로 나타나는 사전의 올림말을 본문(Thälmann, Ernst)의 주제부라고 하며 이 주제부는 그아래에 전개되는 모든 진술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문장부호법의 변화에서 찾아볼수 있다.

원래 문장부호법 두점(:)은 바로옮김법에서 옮겨지는 말과 옮기는 말사이에, 주문장에서 지적된 사항을 열거할 때, 총괄하여 설명할 때 등에 쓰이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쓰임과는 달리 두점이 흔히 계사를 대신해서 사용되며 어떤 결과를 나타내거나 앞에서 언급된것을 총괄하여 나타낼 때에도 쓰이는데 이것은 흔히 저속한 출판물이나 청년잡지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례: Unschön: Müller brach sich am dritten Tag seines Leipzig-Aufenthaltes den Kiefer beim Überspringen eines Bordsteins.

(불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러가 라이프찌히에 머무르던 3일째 되는 날 연석을 건너뛰다가 턱이 부서진것이였다.)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이야기나 토론 등에서 동사의 시칭범주와 상범주 등의 사용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우선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본문에서 동사의 과거시칭형태를 현재시칭형태로 바꾸어 사용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것은 과거의 사실을 마치나 지금 현재 눈앞에서 그러보는것처럼 재현하기 위하여 사용된것이다.

례: Gestern war der zweite Spieltag der Eishockey-Bundesliga.

Mannheim verliert in München 2:4.

(어제가 빙상호케이1부류런맹전의 두번째 경기날이였다.

만하임이 뮌헨과의 경기에서 2:4로 패한다.)

또한 동사의 상범주사용에서 즉 능동형태로 시작되었던것을 피동형태로 바꾸어 사용

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동의 주인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가능하게 된다.

례: ich hab daraufhin gebremst ausjestiegen und habe den mann festgenommen und habe gesacht einsteigen in den Streifenwagen sie sind vorläufig festgenommen [...] die person wehrte sich also sehr erheblich [...] so dass Unterstützung angefordert wurde [...]

(나는 그다음 제동을 하고 차에서 내려 그 놈을 붙들었고 순찰차에 오르라고 말했다. 그들은 우선 붙들었는데 ... 그 놈이 필사적으로 막아나섰고 ... 지원이 요구되었다. ...)

또한 언어사용에서 진행중에 있다는것을 나타내는 표현형태가 점점 더 많아지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례: Ich bin grad am Telefonieren. (나는 방금 전화를 하던 중이다.)

Wir sind grad noch beim Essen. (우리는 지금 식사를 하는 중이다.)

우의 실례들에서 보는것처럼 진행중에 있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형태 《전치사+동사의 명사화+sein동사》로 표현(am Telefonieren sein, beim Essen sein)되고있다.

도이칠란드어본문의 문법구조에서 나타나고있는 특성은 다음으로 부문장들을 접속사가 없이 련결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주문장과 부문장들을 련결함에 있어서 부문장의 첫자리에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의 인칭변화형을 두번째 자리에 놓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례: ich meine das ist natürlich nur ein symbol

(이것은 내가 보건대 물론 상징에 불과하다.)

이때 상위문장과 부문장사이를 흔히는 두점을 쳐서 분리시킨다.

례: Jeder Medizinstudent lernt: Nur lückenlose Daten können die möglichen Ursachen einer Krankheit erhellen.

(모든 의학대학학생들은 빈틈이 없는 자료들만이 병의 원인들을 가능한것 밝혀낼수 있다는것을 배우고있다.)

또한 weil-문장과 obwohl-문장들에서 동사의 인칭변화형이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례: die muss ja praktisch ihren ganzen haushalt auflösen? nich? (.) weil der gute knabe der hat ja alles

(그 녀자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살림살이를 완전히 그만두어야 하지요? 마음이 착한 그 소년이 모든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우리는 도이칠란드어본문구조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그 연구성파를 교수내용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과학교육중시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도이칠란드어본문, 문법구조